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 학위논문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연구 동향(2015년-2020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 교육전공

정 지 수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연구 동향(2015년-2020년을 중심으로)

Trends in research on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Based on 2015-2020)

202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 교육전공

정 지 수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연구 동향(2015년-2020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성 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 교육전공

정 지 수

정지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정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성준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곽재복 인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차	vii
그림 목차	viii
ABSTRACT	ix
I . 서론	1
II . 이론적 배경	3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3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역량	6
III . 연구 방법 및 절차	15
1. 분석 대상	15
2. 분석 기준	19
IV . 연구 결과	21
1.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동향	21
2. 학교급별 동향	23
3. 내용 영역별 동향	24

(1) 가정생활	27
가. 인간발달과 가족	27
나. 가정생활과 안전	29
다. 자원관리와 자립	32
(2) 기술의 세계	35
가. 기술 시스템	35
나. 기술 활용	36
(3) 기타	37
V. 결론 및 시사점	41
참고문헌	47

표 목 차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의미와 하 위요소	4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의 세부목표 및 핵심개 념과 영역	7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의 세부목표 및 핵 심개념과 영역	9
<표 4>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의 교 과역량 요소 및 관련 핵심역량	11
<표 5>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과역량 요소 및 관련 핵심역량	13
<표 6> 분석 대상 논문	15
<표 7> 기술·가정교과서 연구의 분석 기준	19
<표 8>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논문 수	21
<표 9> 학교급별 분포	23
<표 10> 기술·가정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	25

그림 목 차

<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역량	6
<그림 2>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영역 및 핵심개념	8
<그림 3>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영역 및 핵심개념	10
<그림 4>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교과역량 요소 및 핵 심역량	12
<그림 5>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교과역량 요소 및 관련 핵심역량	14
<그림 6>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논문 수	22
<그림 7> 학교급별 분포	23
<그림 8> 기술·가정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	26

ABSTRACT

Trends in research on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Based on 2015-2020)

Jeong ji-sue

Advisor : Prof. Sung-Joon Lee Ph.D.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tudied the contents of 2015 revised technology and home education among the papers publish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from 2015 to 2020. This paper analyzed related studies including technology and home education in the title or keyword. The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42 collected papers into research years, school levels, and content areas.

According to the analysis, 15 studies of technology and home education were most active in 2019, and 4 to 7 studies were conducted in other years. Based on the standards of academic journals, many studies were conducted with 14 and 13 books, respectively, at the Korean Family and Education Association and the Learner-centered Association of Textbook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In the case of school classes,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analyzed only the contents of middle school curriculum was 24, and 10 studies analyzed the contents of high school curriculum. There were eight papers that studied two or more classes together. Technology and household contents are classified as "home life" and "technology world", "home life" consis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home life and safety", "resource management and self-reliance", and "technology world" consists of "technology system" and "technology utilization". Of the 42

papers, 28 were the most studied only in the area of "home life," 12 were "resource management and self-reliance," followed by 11 were "home life and safety," and 5 wer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Three papers that only studied the "world of technology" accounted for a small percentage, two studies on "technology utilization", and one study on "technology system". A total of 11 papers were studi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home life" and "the world of technology. “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2019 since the 2015. The number of studie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amount of data and analysis studied increases over time after the revision. As a result, research on technology and home sectors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Second, research on technology and home education in the research trends by school level was conducted mainly in middle school level. Therefore, it presents the need to promote research at the elementary and high school level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research trends by content area, most of the research on technology and home textbooks was conducted on 'home life'. It presents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he 'world of technology' and the need for research activation. Fourth, it present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current teachers in technology and home, and prospective teachers majoring in technology and home educ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detailed fields of technology and family curriculum for technology and family education.

Keywords: Technical Education, Home Education, 2015 Revised Curriculum, Research Trends, Content Areas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게재된 논문 중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을 연구하고, 제목 또는 키워드에 ‘기술·가정’ 또는 ‘실과’를 포함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42편의 논문을 연구년도 및 학술지, 학교급, 내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에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외의 연도에서는 4~7편으로 비슷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술지 기준으로는 한국가정교육학회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에서 각각 14편, 13편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 교과 내용만 분석한 연구가 24편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10편이었다. 2개 이상의 학교급을 함께 연구한 논문은 8편이었다. 기술·가정의 내용 영역은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분류되며, ‘가정생활’은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의 영역을 구성되고 ‘기술의 세계’는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42편의 논문 중 ‘가정생활’ 영역만을 연구한 논문이 28편으로 가장 많았고, 하위 영역별로는 ‘자원관리와 자립’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정생활과 안전’이 11편이며 ‘인간발달과 가족’이 5편이었다. ‘기술의 세계’만을 연구한 논문은 3편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는 2편이 있었고, ‘기술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1편 존재했다.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연구한 논문은 총 11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2015 개정 이후 2019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개정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되는 자료와 분석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연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술·가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학교급별 연구 동향에서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학교 학교급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초등·고등학교 학교급의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기술·가정교과 연구는 대부분 ‘가정생활’에 대해 이뤄졌다. ‘기술의 세계’에 대한 연구 중요성과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기술·가정 현직교사, 기술·가정교육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기술·

가정교육을 위해 기술·가정 교과 of 세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술 교육, 가정 교육, 2015개정 교과, 연구동향, 내용 영역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성공적인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역량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에서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함양하여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한다(교육부, 2015). 또한,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은 기술·가정교과에서 핵심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교과 역량으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생활 자립 능력, 관계 형성 능력,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핵심역량은 교과가 기반으로 하는 학문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지는 교과 역량의 함양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육 대상자에게 그들이 살아갈 사회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목표의 변화로 교육과정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따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로 인한 교육의 변화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기술·가정교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재 2015 개정 이후 기술·가정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이후 기술·가정교과의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동향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기술·가정 관련 학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가정교과는 2015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게재된 논문 중 2015년 개정 이후의 초·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내용을 연구한 논문을 42편 선정하였다. 기술·가정 관련 논문이란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기술·가정’ 또는 ‘실과’를 포함한 논문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술·가정교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의 내용 비교 분석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수집된 논문을 통해 연구년도 및 학술지, 학교급, 내용 영역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이후의 초·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기술·가정’, ‘실과’를 포함한 논문을 42편을 추출했지만,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모든 논문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진 논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에 대해 소개한다. 3장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기술·가정 논문을 소개하고, 분석 기준을 제시한다. 4장 교과서 연구 분석은 3장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서의 연구 동향과 내용을 연구년도 및 학술지, 학교급, 내용 영역별로 분석한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역량이란 기업 교육, 직업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려 하는 업무나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직무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 태도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과제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성은모 외, 2015). 핵심역량은 ‘key competence’ 나 ‘corecompetence’ 등으로 표현되며, DeSeCo 프로젝트는 Rychen(2003)에 따르면 핵심역량의 세 가지 범주로 규명하고 이는 도구의 상호적 활용, 이질적인 집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인 행동이다.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것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며,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에 공헌하며, 개인에게 필요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소경희, 2007). 해당 프로젝트 이후 핵심역량의 개념은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및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핵심역량의 개념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핵심역량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능력이고, 초·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강조되고 발달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이광우 2015). 교육과정의 문서에 ‘핵심역량’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으며(김지숙, 2017), 개발 과정에서 교과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중점적

으로 함양하고 기르는 것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종류와 의미, 하위요소는 <표 1>과 같다(교육부, 2015).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의미와 하위요소

핵심역량	의미	하위요소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선용, 자기 통제(절제), 건강관리, 기초학습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자기 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기본 생활습관 등
지식정보처리 역량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의 인식/정보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 탐색/해결 방안 실행, 평가/매체 활용 능력 등

<p>창의적 사고 역량</p>	<p>폭넓은 기초 지식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경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p>	<p>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 능력) :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유추성, 정교성, 등</p> <p>창의적 사고 성향(정의적 특성) : 개방성, 민감성, 독립성, 자발성, 과제 집착력, 등</p> <p>융합적 사고 : 창의적인 사고기능 및 성향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과 지식들을 융합하여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산출하는 사고 능력</p>
<p>심미적 감성 역량</p>	<p>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p>	<p>문화적 감수성, 공감, 다원적 가치 존중, 상상력 등</p>
<p>의사소통 역량</p>	<p>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p>	<p>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타인 이해 및 존중, 텍스트 이해, 배려 등</p>
<p>공동체 역량</p>	<p>세계·국가·지역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가치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p>	<p>시민의식, 환경의식, 준법정신, 봉사정신, 윤리의식, 규범 및 질서의식, 갈등 관리, 협동, 리더십 등</p>



<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역량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6가지 제시하였으나, 핵심역량은 그 자체로만 길러지는 것은 아니며 각 교과에 따라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 계발을 통해 핵심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핵심역량과 함께 교과역량을 설정하였다(김경자 외, 2015; 온정덕 외, 2015). 교과역량은 개별 교과에 따라 각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여 제시되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성격, 내용 체계 등 교과역량을 반영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광우,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교과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교과역량에 대한 소개가 강화되었다(김수민과 유난숙, 2019).

기술·가정교과는 교육 분야가 ‘가정생활’ 과 ‘기술의 세계’ 로 구분된

다.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생활 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과 같은 3가지 교과역량이 제시됐다.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 배경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대안을 탐색한 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추론과 가치 판단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생활 자립능력’ 이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발달 과정 속에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 및 수행 할 수 있고, 주도적 관점에서 생애 및 자기 관리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관계형성능력’ 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 건강한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교육부, 2015).

이런 교과역량은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의 세부목표에 나타나고 있다. ‘가정생활’ 분야의 핵심개념과 영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의 세부목표 및 핵심개념과 영역

분야	세부목표	핵심개념	영역
가정 생활	가족관계와 자신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돌봄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을 기른다.	발달	인간발달 과 가족
		관계	
가정 생활	가정생활에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며,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 노작 활동과 체험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자립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생활문화	가정생활 과 안전
		안전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의 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를 통한 자신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생활자립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을 기른다.	관리	자원관리와 자립
	생애설계	



<그림 2>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영역 및 핵심개념

‘기술의 세계’는 인간의 조작적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뜻하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자원을 활용해 생존과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만드는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의 세계’ 분야는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식, 태도, 기능의 능력을 기르며,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 창의력 등의 능력을 길러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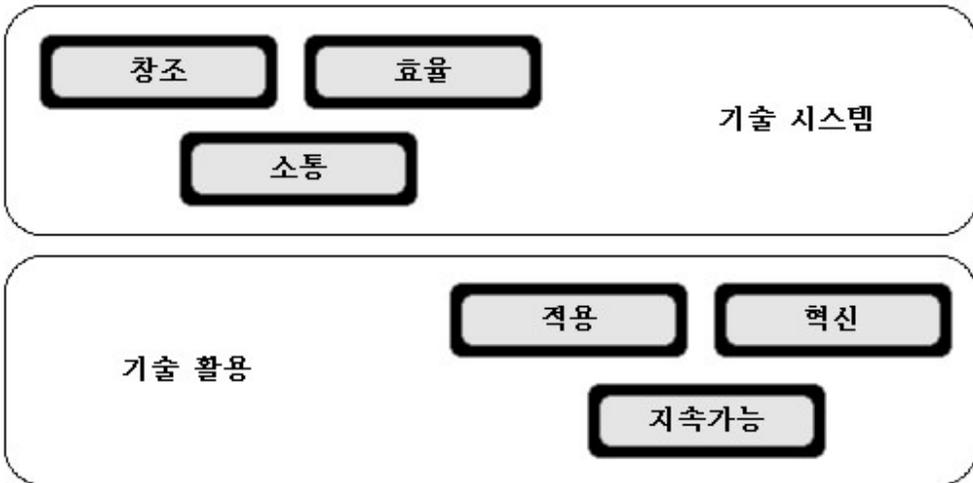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의 영역으로 나뉘어 ‘기술 시스템’ 영역은 효율, 소통, 창조를 핵심 개념으로 ‘기술 활용’

은 적응, 혁신, 지속 가능성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기술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게 된다.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은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탐색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술시스템 설계 능력’이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수송·통신 기술 등의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의 흐름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계하는 능력을 뜻한다. ‘기술 활용 능력’은 생산, 수송 및 통신 기술의 개발, 혁신, 적용,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명과 표준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

이러한 교과역량은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기술의 세계’ 분야의 세부목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목표의 내용을 ‘기술의 세계’ 분야의 핵심개념과 영역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교육부, 2015).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의 세부목표 및 핵심개념과 영역

분야	세부목표	핵심개념	영역
기술의 세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설계능력과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창조	기술 시스템
		효율	
		소통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활용능력과 기술시스템 설계능력을 기른다.	적용	기술 활용
		혁신	
		지속가능	



<그림 3>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영역 및 핵심개념

교과역량은 교과에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을 구체화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과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 분야의 교과역량 하위요소는 아래 <표 4>와 같다.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 요인은 실천적 추론, 가치판단,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실행능력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핵심역량은 지식정보처리역량으로 나타났다. 생활 자립 능력의 하위요소는 의식주 생활 수행능력, 발달과 자아정체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시간·금전·여가 관리,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활용, 생애 설계 및 진로 의식,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핵심역량은 자기관리역량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배려와 돌봄, 타인 존중과 소통, 환경 및 생태 의식, 공감 능력과 갈등 관리,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문화 수용성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으로 나타났다.

<표 4>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의 교과역량 요소 및 관련 핵심역량

분야	교과역량		관련 핵심역량
	요소	하위요소	
가정 생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가치판단 비판적 사고 실행능력	지식정보처리역량
	생활자립 능력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의식주생활 수행능력 발달과 자아정체성 시간·금전·여가관리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활용 일과 가정의 양립 생애설계 및 진로의식	자기관리역량
	관계형성 능력	환경 및 생태 의식 타인 존중과 소통 배려와 돌봄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공감능력과 갈등 관리 문화수용성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심미적감성역량



<그림 4>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교과역량 요소 및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과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과역량 하위요소는 다음 <표 5>와 같다.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요소는 아이디어의 탐색과 개발, 문제의 확인, 해결책의 실현, 과정 및 결과물의 평가로 나타났으며 관련 핵심역량은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나타났다. 기술 시스템설계능력의 하위요소는 투입요소 선정, 과정 결정, 산출 및 평가, 되먹임의 결정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핵심역량으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나타났다. 기술 활용 능력의 경우 하위요소는 융·복합 능력, 적응 능력, 개발 혁신 능력, 표준화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핵심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나타났다.

<표 5>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과역량 요소
및 관련 핵심역량

분야	교과역량		관련 핵심역량
	요소	하위요소	
기술의 세계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문제의 확인 해결책의 실현 아이디어의 탐색과 개발 과정 및 결과물의 평가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기술 시스템 설계능력	투입 요소의 선정 산출의 평가 과정의 결정 되먹임의 결정	지식정보처리 역량
	기술 활용 능력	융·복합 능력 적응 능력 개발 혁신 능력 표준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림 5>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의 세계’ 교과역량 요소 및 관련 핵심역량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기술·가정교육 관련 학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최근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를 연구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한국실과교육학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실과교육연구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대한공업교육학회’, ‘한국생활과학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연구학회’, ‘교육과정평가연구’, ‘한국인구교육학회’와 같은 9개의 학술지에 등재된 42편의 논문을 연구하였다. 논문의 제목이나 키워드에 ‘기술·가정교과’를 포함하거나, 논문의 제목으로 기술·가정교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기술·가정교과를 연구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논문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분석 대상 논문

순번	제목	저자
1	중학교 기술·가정, 과학 교과서의 원자력 관련 교육내용 분석	이춘식 (2015)
2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평가: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백민경, 조재순 (2015)
3	가정교과의 녹색식생활 교육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김은실, 조현주, 김윤희 (2015)
4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 개발에서의 쟁점 및 방향	전세경 (2015)

5	2015 개정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인 구교육 적용 방안-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이수정 (2015)
6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창의 공학 설계'단원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운영 실태 분석 및 개 선 방안	김성일, 임윤진 (2016)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 (기술·가정) 교과 역량 인식 및 개선 연구	류상희, 진의남 (2016)
8	실과 (기술·가정) 교과 역량에 대한 전문가 집 단의 인식	진의남, 류상희 (2016)
9	2015 개정 가정과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 :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임정하, 전미경 (2016)
10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 성 격과 핵심역량 분석	김지숙 (2017)
11	중학교 기술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이상봉, 곽유림 (2017)
12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교과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노희연, 조재순, 채정현 (2017)
13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2015 개정 기 술·가정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및 내용 체계 의 하위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가중치 도 출: ‘가정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김은정 (2017)
14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인구교육 내 용 분석	이수정 (2017)
15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에서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방안 연구: 2015 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서현 (2017)
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준거 성취기준에 기 초한 실과 (기술·가정) 의 기술영역 예시평가 도구의 개발	진의남, 임윤진, 박수진, 이광재 (2017)

17	가정교과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조사	한주 (2018)
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활동과제의 민주시민역량 분석	한주 (2018)
19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활동 과제의 동기유발 전략 분석	한주, 이현정 (2018)
20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활동과제 분석	최유리, 김은정, 이소영, 이지선, 임소진, 박미정 (2018)
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1 교과서 분석-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유미란, 구혜경 (2018)
22	2015 개정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하위요소와 기능의 구체화	임윤진, 박미정 (2019)
23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 반영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이성민, 유난숙 (2019)
24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주생활’ 단원 내용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	최성연, 이영선, 김은정, 김승희, 이지선, 조재순 (2019)
25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단원에 구현된 교과역량 분석	김수민, 유난숙 (2019)
26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남녀 삽화 연구	이은성, 전미경 (2019)
27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분석: 제 7 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박채은, 김유경 (2019)
28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일·가정 양립’ 단원 내용 분석	김소영 (2019)

29	2015 개정 중학교 1 학년 기술·가정교과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내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강원지역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복란 (2019)
30	2015 실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분야의 중복성 분석	양정혜 (2019)
31	2015 개정 중등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정생활’ 영역 단원평가 분석	김경민, 이하나, 송지은, 신우경, 이고은 (2019)
3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 개념 ‘관계’ 단원 내용 분석	김경민, 송지은, 이고은 (2019)
33	2015 개정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생활문화’ 핵심개념 단원 분석	김셋별, 채정현 (2019)
3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내용 분석: 핵심개념 ‘발달’ 을 중심으로	김경민, 송지은 (2019)
35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개념 ‘안전’ 단원 활동 과제 분석	김셋별 (2019)
36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허영선, 김남은 (2019)
37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 및 탐구 성향 분석- ‘지속가능한 소비’ 단원을 중심으로	육경민 (2020)
38	중학교 가정교과의 SDGs 교육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생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평가	김은경, 조재순 (2020)
39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단원의 기업가정신 교육 수업자료 개발	임영대, 김진수 (2020)

40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 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단원 교육 전후 영양지식, 식행동과 식이자기효능감 차이분석	김윤선 (2020)
41	중학교 가정교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허영선, 채정현 (2020)
42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허영선, 김남은 (2020)

2. 분석 기준

<표 7> 기술·가정교과서 연구의 분석 기준

분석 기준	하위 요소	
연구년도 및 학술지	2015년 ~ 2020년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내용 영역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
	기술의 세계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기술·가정교과서 연구의 분석 기준은 <표 7>과 같다.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도 이후에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중 2015 개정 이후의 내용은 연구한 42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연구년도 및 학술지,

학교급, 내용 영역 3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연구 연도는 2015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학교급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단일로 분석한 연구와 2개 이상의 학교급의 교과서를 연구한 논문으로 분류했다. 내용 영역의 경우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 분야의 영역에 따라 가정생활은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으로 구분하였고,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으로 구분하여 동향을 파악했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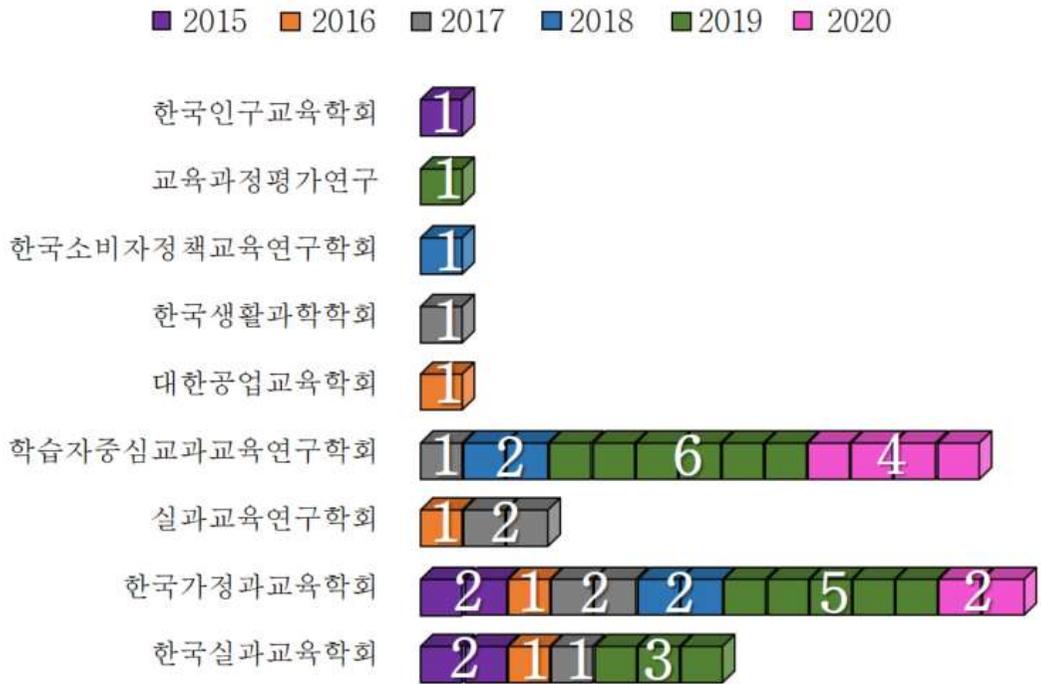
1.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동향

연구 연도 및 학술지별 논문의 분포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논문 수

학술지 \ 년	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실과교육학회	2	1	1		3		7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	1	2	2	5	2	14	
실과교육연구학회		1	2				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1	2	6	4	13	
대한공업교육학회		1					1	
한국생활과학학회			1				1	
한국소비자정책교육연구학회				1			1	
교육과정평가연구					1		1	
한국인구교육학회	1						1	
합계	5	4	7	5	15	6	42	

위 <표 8>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활발히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을 제외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는 1년에 4~7편의 연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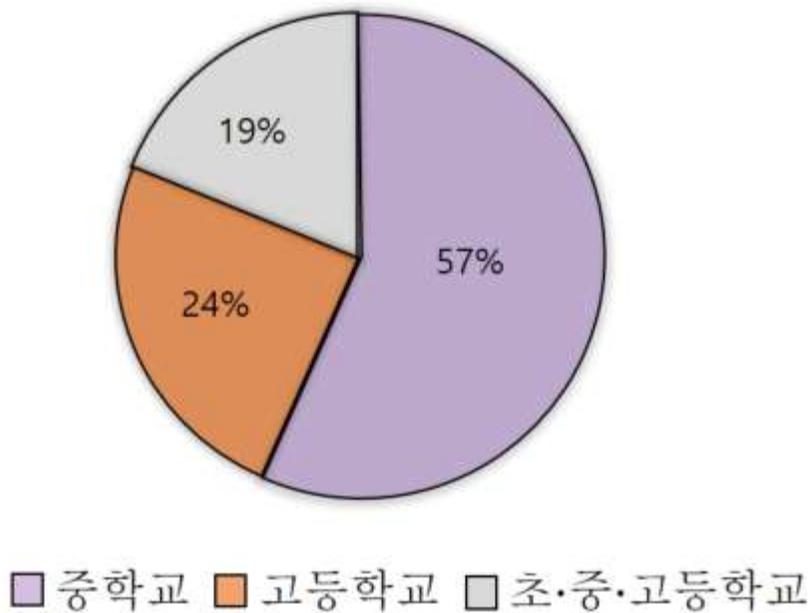
학술지별 연구 동향은 <그림 1>과 같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 14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있었고, 이어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에서 13편의 연구가 이뤄졌다. ‘한국실과교육학회’와 ‘실과교육연구학회’에 각각 7편, 3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대한공업교육학회’, ‘한국생활과학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연구학회’, ‘교육과정평가연구’, ‘한국인구교육학회’에서 각 1편의 연구가 진행됐다.

2. 학교급별 동향

<표 9> 학교급별 분포

학교급	편수(편)	비율(%)
중학교	24	57%
고등학교	10	24%
초·중·고등학교*	8	19%
합계	42	100%

* 두 학교급 이상을 포함한 논문에 해당



<그림 7> 학교급별 분포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의 학교급별 분포는 <표 9>와 같다. 42편의 논문 중 24편의 논문이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대한 논문으로 전체 중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를 연구한 논문은 10편으로 24%를 차지했다. 2개 이상의 학교급의 기술·가정교과서를 연구한 논문은 8편으로 전체 논문 중 19%를 차지했다.

3. 내용 영역별 동향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는 교육 분야를 ‘가정생활’ 과 ‘기술의 세계’ 로 구분한다. ‘가정생활’ 의 분야는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생활 자립 능력’, ‘관계 형성 능력’ 의 3가지 핵심 교과역량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내용 영역을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 으로 구분한다. ‘기술의 세계’ 분야의 경우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기술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의 핵심 교과역량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으로 내용 영역이 구분된다.

‘가정생활’ 분야는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의 영역을 중심으로 관계, 발달, 생활문화, 관리, 안전, 생애 설계를 핵심 개념으로 내용 요소가 구성된다.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은 가족을 형성하고, 부모 됨과 자녀 돌보기를 통한 배려 및 돌봄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은 우리나라 전통 가정생활의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 발전과 세계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가정생활 문화의 주체로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한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은 직업 생활과 가족생활을 균형 있게 설계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 및 관리하여 자립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한다. 3가지 연역을 통해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생활 자립 능력, 관계형성 능력의 함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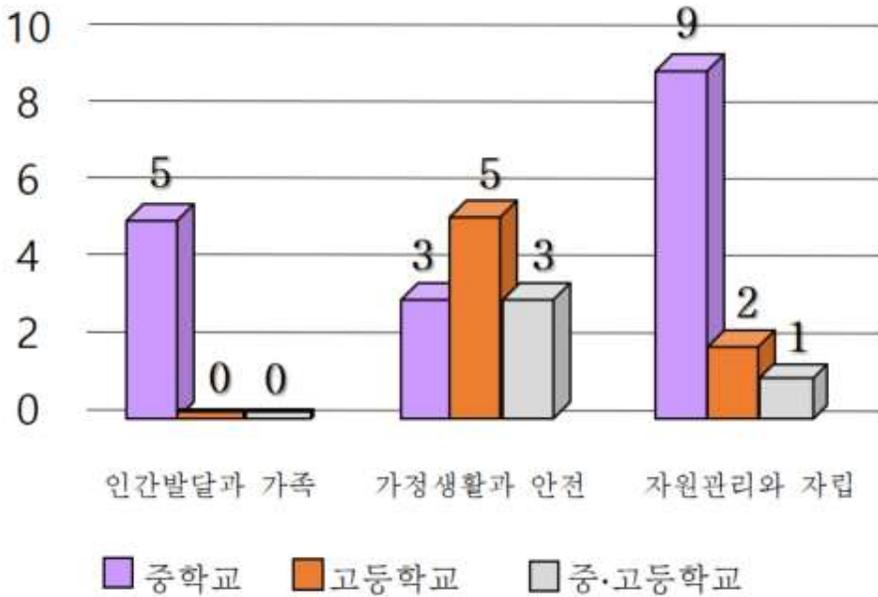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5).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기술 활용’의 발명, 표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경험과 실천과 ‘기술 시스템’의 생산·수송·통신 기술을 통해 이뤄진다. 학습자가 삶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생산·수송·통신 기술 문제를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 태도, 기능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탐색하며, 실현 및 평가하는 실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득한 기술적인 소양과 능력은 적정 기술의 개발, 기술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활용되어 기술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해준다(교육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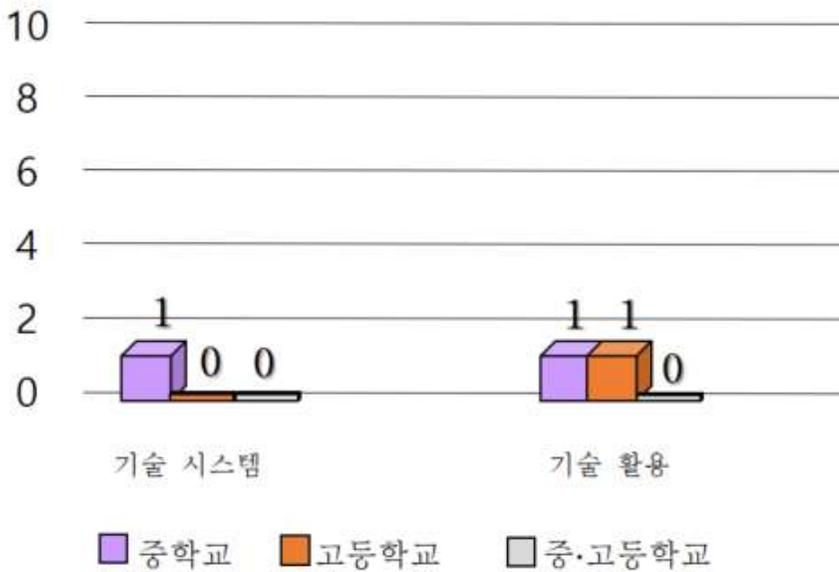
<표 10> 기술·가정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

영역		학교급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정생활	인간발달과 가족	5	.	.	5
	가정생활과 안전	3	5	3	11
	자원관리와 자립	9	2	1	12
기술의 세계	기술 시스템	1	.	.	1
	기술 활용	1	1	.	2
기타		5	2	4	11
합계					42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그림 8> 기술·가정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은 <표 10>, <그림 8>과 같다.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를 연구한 논문들은 크게 내용 영역을 연구한 연구와 기술·가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 2가지로 구분된다. 특정 영역이 아닌 전반에 대한 연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 역량에 대한 핵심역량 및 하위 요인에 대한 분석,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연구, 새로운 교과 내용 제시,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은 <표 10>의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1)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내용 영역은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으로 나뉜다.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는 전체 42편의 연구 중 28편으로 67%에 해당된다.

가. 인간발달과 가족

‘인간발달과 가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성민과 유난숙(2019)은 다문화 교육 내용이 ‘인간발달과 가족’의 영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에 대해 분석개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정체성, 평등성 협력, 다양성, 등 다문화 교육 분석개념 4가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중 협력의 개념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 및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서의 가족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편견 없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개인과 가정인 서

로 협력하며 배려하여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수민과 유난숙(2019)은 ‘관계’에 관련된 단원을 분석 근거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첫째, 교과서에 나타난 교과역량이 출판사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 형성 능력’의 역량별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활동과제를 살펴봤을 때,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의 가치 판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논리적 사고,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 형성 능력’의 경우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갈등관리, 타인존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정화와 전미경(2016)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 개념인 ‘발달’과 ‘관계’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은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발달’에선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인성 교육, 안전 및 건강교육, 인권교육을 다루고, ‘관계’의 개념은 안전 및 건강 교육, 다문화 교육,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은 전 생애적 관점에서 신체, 인지, 지속적인 역동성, 사회정서 발달의 연계성 및 주요 개념들의 체계와 위계, 전달정보 구체성,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른 과학적인 정보 활용, 청소년 발달의 다양성 측면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관계’의 경우 세대 관계, 성별 관계, 역할 관계, 권력 관계의 가족 집단적 특징을 염두 하여 지식 위주,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중산층 중심 가족상을 중심의 설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외(2019)는 ‘인간발달과 가족’의 영역 중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구성,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 구성 측면에서 대단원명을 대부분 ‘가족의 이해’로 사용하였다. 목표의 측면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계 형성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제해결 교수학습법과 협동 중심 교수학습법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과 송지은

(2019)은 ‘인간발달과 가족’의 영역 중 ‘발달’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의 소재 조직 구성과 교수학습법의 활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대단원명을 대부분 ‘청소년의 발달과 이해’로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도입, 전개, 마무리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삽화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시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교수학습법의 경우 협동 중심의 교수학습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생활과 안전

‘가정생활과 안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희연 외(2017)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정교과 중 ‘가정생활과 안전’ 기반의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교육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가정생활과 안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복란(2019)은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내 식생활 단원 학생 흥미 및 교과 과정과 실생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학생들은 주로 식생활 단원에서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교과과정과 연계된 분석에서는 아침 식사 결식률, 탄산음료 섭취율, 고카페인 섭취율, 음주 경험, 흡연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식습관 점수, 체형 만족도,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인지 점수를 수치화하였다. 김경민 외(2019)는 기술·가정교과의 단원 평가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단원별 평가 문항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선다형 유형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어서 단답형·서술형 문

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별 평가 문항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영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민경과 조재순(2015)은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했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해 나눔으로 통하는 배려의 테마1과 실천으로 통하는 배려의 테마2로 나누어 개발 평가했다. 그 결과 첫째, 총 13차시의 배려와 나눔 실천 교수·학습 과정안은 테마1과 테마2로 나누어, 테마1은 '건강한 가족문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총 5차시를, 테마2는 '의식주 생활 속 배려와 나눔'을 중심으로 총 8차시를 개발했다. 둘째, 테마1에서 추출된 배려와 나눔 실천 요소(삼사, 소통, 사랑, 용기, 공감, 환경)를 우리나라의 가정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의 상황(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장애인, 수험생 가족, 3세대)에 맞춰 테마2에 적용한 결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둠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나눔과 배려의 실천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셋째, 청소년 인성 측정 문항의 요인 분석의 사전 검사 결과 배려와 나눔 인식, 자아 인식, 배려와 나눔 실천 3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세 인성 변수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정생활과 안정의 활동과제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한주와 이현정(2018)은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활동과제에 대해 동기 유발 전략을 분석하였다. 동기 유발 전략을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 교과서와 분석 자료 선정, 분석 도구 개발, 활동 과제 분석의 3단계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12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동기 유발 전략은 394건으로, 단원 전개 부분과 정리 부분에서 주로 동기 유발 전략이 사용됐다. 전체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전략은 관련성 전략으로 나타났다. 관련성 전략은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활동 과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천 교과라는 가정교과의 교과 성격에 부

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리 외(2018)은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활동과제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활동과제를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2종의 교과서에서 303건의 활동 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활동과제들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과 안전의 영역과 인간발달과 가족의 영역 모두에서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을 고루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삿별과 채정현(2019)은 ‘생활문화’의 핵심개념 단원의 텍스트와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 결과, ‘전통 식생활 문화’는 식생활 문화를 음식을 통해 다뤘으며, ‘전통 의생활문화’는 전통 의생활문화에 현대 의생활의 창의적인 활용을 ‘전통 주생활 문화’는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의 이해를 통한 친환경적 주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171개의 생활문화 활동과제에서 ‘가치’, ‘문화’, ‘실천’의 요소로 전통생활 문화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생활문화 이해를 통해 현대 생활문화에서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활동과제가 주로 제시되는 것을 확인했다. 김삿별(2019)은 기술·가정교과서의 ‘안전’ 단원의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가정1의 활동과제는 112개 기술·가정2의 활동과제는 147개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안전’ 활동 과제의 빈도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세부 내용 요소는 주로 ‘스트레스/분노조절장애’, ‘주택 안전’, ‘식품 선택’, ‘성 폭력’, ‘아동 폭력’으로 구성됐으며, ‘안전·위생 조리’, ‘성 의사결정’, ‘노인 폭력’의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원관리와 자립

‘자원관리와 자립’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육경민(2020)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가정교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탐구력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지속 가능한 소비’ 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의 관점 및 탐구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은 ‘지속 가능한 소비’ 단원에 제시되어 있으며, 전체 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분석 교과서 중 탐구적 성향을 고르게 갖춘 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관리와 자립’의 내용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성연 외(2019)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주생활’ 단원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주생활 단원을 분석했다. 5종의 교과서 분석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관련 빈도가 568로 나타나서 주생활 단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채은과 김유경(2019)은 식생활 영역의 교육과정별 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7차 개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서 식생활 영역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0.97%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생활 영역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2018)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활동과제에 나타난 민주시민역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가지 민주시민역량군 중 ‘시민성 역량군’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다뤄짐을 밝혔고, 민주시민역량은 ‘신뢰와 가치’역량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2017)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인구교육 내용의 반영 장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인구교육 내용의 대영역은 ‘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복

지’, ‘인간존중’, ‘인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서 제시된 인구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당 평균 42쪽 정도를 다루었지만, 교과서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서의 인구교육 자료 유형의 경우 본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진·삽화·도표, 읽기자료, 탐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영(2019)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일·가정 양립’의 개념, 필요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5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과서는 일·가정 양립을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상황의 발생 문제로는 가족 가치관 갈등, 역할 갈등, 일정강등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활동과제는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토의, 발표 활동이 주를 이뤘다. 유미란과 구혜경(2018)은 중학교 기술·가정1 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성취기준에서 지속가능소비 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주권의 개념, 청소년의 재무 설계 관련 내용에 대한 선취 기준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가정교사들의 소비 생활영역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강화, 재교육 시 소비자학 수업 사수의 증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원관리와 자립’의 교수학습법 및 수업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경과 조재순(2020)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 및 평가하였다. 기술·가정2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을 분석하여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와 연계하여 수업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모듈 활동과 학습자료 및 설문지를 개발한 뒤 실제 수업을 진행한 뒤 학생들의 평가를 수집한 결과, 개발된 수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모듈별 수업 활동과 성찰 일기 작성은 학습 목표 달성과 실천 의지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대와 김진수(2020)는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단원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개발된 기업가 정신 교육 수업자료는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육 수업자료는 기업가정신 하위 요인 중 혁신성에만 유의미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고, 위험 감수성, 진취성, 성취 욕구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실 외(2015)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녹색 식생활 실천에 주는 영향과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녹색 식생활 단원의 교육 효과를 분석하였다. 녹색 식생활 실천과 효능감은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가족관계, 또래 관계 자기역량 요인과 행복감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은 녹색 식생활 실천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식생활 실천 효능감은 자아존중감의 가족관계, 또래 관계, 자기역량 요인, 행복감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부정적 인간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식생활 교육 후 녹색 식생활에 대한 흥미 및 실천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했지만, 청소년 자아존중감 요인과 행복감 요인에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2015)은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인구교육 요소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법 및 평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초등 기술·가정 영역의 경우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법 및 평가의 영역에서 인구교육 내용인 잘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초등학교 기술·가정의 경우는 인간존중의 영역 중 평등, 가족 영역 중 가족의 의미와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중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영역의 경우 인간존중 중 평등, 가족 영역 중 가족의 의미와 변화, 결혼, 복지 영역 중 공적 대비, 사적 대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영역은 가족 영역 중 가족 영역과 관련된 결혼, 출산과 양육, 복지 영역과 관련된 공적 대비, 사적 대비와 관련하여 중학교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효과에 대해 김운선(2020)은 기술·가정교과 시간에 식생활 단원 수업

후 교육 전·후의 영양지식 행동 및 식이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다. 영양 지식 전체 점수, 식습관 전체 점수, 식이 자기효능감의 전체 점수 모두는 식생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기술의 세계

가정생활의 내용 영역 중 ‘기술의 세계’ 영역에 대한 연구는 3편으로 전체 42편의 연구 중 7%의 비중을 차지한다.

가. 기술 시스템

‘기술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춘식(2015)은 원자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와 과학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원자력 관련 용어에서 방사선과 방사능 및 방사성의 정확한 개념의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에서는 방사능이 나오는 것이 아닌 방사성 물질의 배출에 대한 서술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원자력 관련 용어 중 핵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에너지는 원자핵이 분열 또는 융합의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뜻하며 현재는 원자핵의 분열만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는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 관련 서술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원자력 관련 서술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표현들에 대한 서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기술 활용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일과 임운진(2016)은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창의 공학 설계’ 수업의 교수학습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술·가정 교사들은 ‘창의 공학 설계’의 수업 내용으로 ‘창의 사고 기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학습 활동 내용으로는 ‘아이디어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기술·가정 교사들은 ‘창의 공학 설계’ 수업 운영을 위해 ‘실습 공구 및 재료비 확보’ 및 ‘수업 공간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단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의 수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가정 교사들이 기대하는 학생 작품의 수준은 ‘교과서 이외의 아이디어 작품’과 ‘생활 속 불편함 개선을 위한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기술·가정 교사들은 ‘창의 공학 설계’ 단원을 수업할 때 실습과 이론의 비율은 ‘3:7’, ‘4:6’, ‘2:8’ 순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평가 방안으로는 작품, 포트폴리오, 발표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창의 공학 설계’ 단원의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실습실 여부, 교사의 성별, 표시과목에 따른 교사의 흥미와 만족도로 나타났다. 박인영과 이정택(2019)은 적정기술 교육을 위한 수업 과정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업 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 개발, 개선의 단계를 거쳐 분석했으며 준비 단계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수업 설계 방향을 설정했다. 개발 단계에서 첫째, 재범 주화한 적정기술의 준거에 따라 평가 문항을 생성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평가지를 개발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적정기술의 문제해결 체험활동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우리나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앞서 개발한 적정기술 평가지를 통해 해당 주제를 평가고 적정기술로서의 적합성을 갖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정

기술 문제해결 체험활동 과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 과정안을 실제 수업에서 예비평가를 거쳐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최종 12차시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3) 기타

기타 항목의 연구는 11편으로 전체 42편의 연구 중 26%에 해당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역량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지숙(2017)은 기술·가정교과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 성격의 핵심 역량에 대해 분석했다. 교육과정 관련 자료와 문헌을 고찰한 뒤 주제별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역량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술·가정교과의 교과역량은 전반적으로 핵심 역량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가정교과역량은 진료 교과보다 일반선택 교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는 핵심·교과 역량의 많은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냈다. 다섯째, 성취기준 진술에서 기술·가정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정윤과 유난숙(2015)은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하위요소의 개념과 기능요소를 구체화했으며,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 방안과 향후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연구 성과를 제시했다.

기술·가정교과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주(2018)은 가정교과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을 연구했다. 가정교과 성격에 대한 인식, 가정교과 선호도, 가정과 교사의 수업 행동 인식, 가정과 수업 유용성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 대상 학생들은 교과 성격 중 ‘전통적 여성 교육’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70% 이상의 학생들은 가정교과를 선호했으며 가정과 교

사의 수업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전반적으로 가정과 수업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과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학업 성취 및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 인식이 교육과정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진의남과 류상희(2016)은 기술·가정교과 역량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 교과 역량 실행 지원 방안에 관한 인식, 교과 역량의 실행 지원 방안에 관한 인식, 교과 역량 증진 방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기술·가정 전문가 집단에서 교과 역량에 기반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가정 전문가 집단에서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수업 지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 전문가 집단에서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수업의 주안점을 자료 제작 및 활용, 역량 중심의 내용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 구현으로 응답하였다.

교수학습법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상희와 진의남(2016)은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과 교과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법 및 평가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가정 교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해 교과 역량별 교수학습법 및 활동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법들을 교과 역량 함양에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역량이 수업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현장 교사들을 위한 교과 역량 기반 교육내용 재구성, 교수학습법 평가 등에 대한 실천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내용 재구성 관련 실생활 연계 교육내용의 재구성, 타 교과 간 문제 해결 융합 및 연계 지도, 교육 내용의 축소 또는 적정화,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수업 시수 등을 제시했다. 교수학습법 측면에서 교수학습 자료의 확장, 실습 가능한 워크북 교과서의 필요성, 활동 위주 수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평가 측면에서 수행평가 모형, 예시안 개발 및 교사 연수 병행, 교과 역량을 위한 평가 방법의 개선에 대해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서현(2017)은 집중 학년·학기 제도의

교과통합 진로 교육 동향 및 고등학교 가정과 성취기준과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가정교과 통합진로 교육 방안 및 수업 사례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진로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가정교과의 3개의 영역의 성취기준은 진로개발역량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셋째,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를 통해 가정교과 통합 진로 수업의 사례를 제시했다. 진의남 외(2017)은 기술 영역의 평가 준거 성취기준을 통해 개발 방향 및 지침에 따라 대표적인 예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 급별 개발 문항에서 초등 실과는 4문항, 중등 기술·가정은 8문항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예시평가 도구는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용으로 개발됐다. 지필 평가는 선다형과 서술형으로, 수행평가는 자기평가, 문제해결, 포트폴리오 형태로 개발됐다. 셋째, 지필 평가의 제시 형태는 문항 개요, 평가 문항, 예시답안 및 해설, 채점 기준을 기본 형태로 했다. 수행평가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 교수학습 활동과 실제 평가 계획 및 각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 양식을 제시했다.

허영선과 김남은(2020)은 가정과 교과를 중심으로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아동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의 영역 모두에서 세계시민 교육의 학습 주제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업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허영선과 채정현(2020)은 가정교과에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평가하여 향후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슈를 고려한 식품 선택 프로젝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주거 문화 프로젝트’, ‘지구촌에서 나의 비전 찾기 프로젝트’의 3개의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실제 수업을 실시한 결과, 세계시민 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상봉과 곽유림(2017)은 중학교 기술교과의 교육과정 변천 전반에 대해 분석하여 변천 과정상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기별 과목명을 변화, 주당 이수 시간의 변화, 교육과정별 교육 목표, 주요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분석하였다. 이은선과 전미경(2019) 양성평등 관점에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남녀 삽화에 대해 연구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중 기술·가정 관련 학술지로 하였다. 기술·가정 관련 학술지를 선정하기 위해 논문의 제목 또는 키워드에 ‘기술·가정’ 또는 ‘실과’를 포함한 논문을 추출했다. 추출된 논문들 중 2015 개정 이전의 내용을 연구한 논문을 제외하고 9개의 학술지로부터 42개의 연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연구년도 및 학술지, 학교급, 내용 영역별로 나누어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년도 및 학술지별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는 2019년에 가장 활발히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4~7편의 연구가 이뤄졌는데, 반해 2019년은 15편의 연구가 이뤄졌다. 2019년 이후 2020년에는 연구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개정 이후 교과 내용의 적용 후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지의 경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 14편, 학습자중심교과연구학회에서 13편의 연구가 이뤄졌다.

학교급별 연구 동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2편의 연구 중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는 24편으로 전체 57%의 비중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10편인데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초·중·고등학교 학교급 중 2개 이상의 학교급의 기술·가정교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8편이 이뤄졌다.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기술·가정교과 내용 중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는 28을 전체 42편의 연구 중 67%에 해당된다. 하위 영역 별로는 ‘자원관리와 자립’에 대한 연구가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생활과 안전’에 대한 연구가 11편 진행됐다, ‘인간발달과 가족’에 대해서는 5편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기술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적은 수의 연구가 이뤄졌다. ‘기술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총 3편이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 ‘기술 활용’이 2편, ‘기술 시스템’이 1편 이뤄졌다.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의 내용을 모두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11편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도별 연구 동향에선 기술·가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2019년도에 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가정교과가 2015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시간이 존재한다. 개정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난 2019년까지는 연구 횟수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 내용도 증가하고, 실제 수업 적용 사례도 수집되기 때문에 이후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중등학교의 경우 2018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었다. 모든 학년에 적용된 것은 2020년부터이다. 2019년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에서 시행된지 1년이 되는 해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1년 동안 적용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2019년에 주로 이루어졌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2019년에 이루어진 연구 15편 중 핵심개념에 대한 연구는 33.3%,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33.3%, 교과역량에 대한 연구는 6.7%, 삽화분석에 대한 연구는 6.7%, 기타연구(단원평가, 중복성분석,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는 20.0%이다. 핵심개념과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가 66.6%로 많은 것으로 보아 핵심개념이라는 용어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고,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내용 또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연구의 학교급별 동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반 이상이였다. 아직 초등학교 실과,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실과,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 학년이 아닌 5~6학년 군에서만 실과를 배우고 이수단위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과 같은 교과에 비해 낮아 관련 연구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중등학교와 달리 한명의 담임교사가 여러 과목을 지도하기 때문에 실과영역의 세부연구가 부족하다고 본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는 생활·교양 영역의 선택교과이다. 생활·교양영역은 기술·가정,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등)/한문/정보/교양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수단위는 학교별 자율이다(2015, 교육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는 선택교과이기 때문에 기술·가정을 개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기에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교 실과의 경우 실과영역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 및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사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학습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으로, 교사 전문성 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기술·가정 교과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교과 채택률을 높인다면 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내용 영역별 연구 동향을 분석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는 ‘가정생활’에 대해 이뤄졌다.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이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였으며, ‘기술의 세계’만을 분석한 연구는 3편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세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기술·가정 교과는 6차 교육과정의 기술·산업 교과와 가정교과가 한 개의 교과로 병합된 교과이다. 기술·가정 교과는 6차 교육과정의 기술·산업과 가정 두 교과가 병합된 교과이기 때문에 한 영역의 연구에 치우치지 않고 두 영역 모두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정생활 영역과 기술의 세계 영역에 대한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기술·가정 교과의 학교현장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술·가정 교과는 학습자가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다루는 실천 교과이므로 문제해결을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의 연구가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술의 세계 영역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활동 하는 과정에서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생들이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적용하고 실습하는 부분이지만 학교의 전통적인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구조 상 기술의 세계 학습 내용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을 찾지 못한 채 다른 교과와 평가방법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의 세계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학생들이 적용하고 실습하는 내용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간 융·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학교현장에서의 수업도 융·복합에 중점을 두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복합 수업은 융·복합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과내용, 교수·학습방법, 매체를 다양하게 융합하여 교수·학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복합 수업을 통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부분을 수업할 때 역할놀이와 협동학습을 적절히 결합하여 교수·학습한다면 보다 학생들에게 학습주제를 내면화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가정교과는 수학, 과학, 미술, 사회, 체육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기술·가정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잘 활용하면 보다 학생들의 지식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확장시켜 실생활에 배운 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를 기르는 데 활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 수업, 타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세계’에 대한 연구 중 이춘식(2015)의 연구는 ‘기술의 세계’ 내용 중 원자력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와 잘못된 서술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잘못된 해당 내용에 대

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 사항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술의 세계’의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오류 사항 및 수정 사항을 밝혀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교수 학습법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기술·가정 현직교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기술·가정 현직교사들은 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의 솔직한 인식과 반응을 생생하게 접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기술·가정 현직교사의 인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의 인식에 대해 연구를 활발히 한다면 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기술·가정 교과가 학생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내실 있는 기술·가정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기술교육, 가정교육, 기술·가정교육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술·가정 교과 of 세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경우에는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수송기술, 통신기술, 기술교과 교육론과 같은 세부 분야가 있다. 가정의 경우에는 의, 식, 주, 소비, 아동·가족, 가정교과교육론과 같은 세부 분야가 있다. 세부 분야는 한 학년에 집중되어 한 번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부 분야는 교과 of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각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과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세부 분야는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년에 걸쳐 학습하게 되므로,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실생활 적용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핵심개념과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가정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전이, 과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참고한 42편의 논문은 대부분 특정단원, 특정영역, 교과역량,

핵심개념, 핵심역량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단 두 편만 세부 분야의 큰 흐름을 다루는 연구였다. 따라서 세부 분야의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내실 있는 기술·가정교육을 위해 기술·가정 교과와 세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기술·가정 관련 연구를 분석했다. 하지만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모든 연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의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김경민, 송지은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교과서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내용 분석: 핵심개념 ‘발달’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평가연구**, 22(4), 31-56.

김경민, 송지은, 이고은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 개념 ‘관계’ 단원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87-109.

김경민, 이하나, 송지은, 신우경, 이고은 (2019). 2015 개정 중등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정생활’ 영역 단원평가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359-1384.

김복란 (2019). 2015 개정 중학교 1 학년 기술·가정교과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내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강원지역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835-857.

김셋별, 채정현 (2019). 2015 개정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생활문화’ 핵심개념 단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871-903.

김셋별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개념 ‘안전’ 단원 활동 과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1389-141

4.

김서현 (2017).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에서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방안 연구: 2015 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65-84.

김서현 (2018). 2015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의생활 수업 개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0(1), 115-128.

김성애, 이상봉 (2017). 2015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 과정에서 기술 시스템 영역의 첨단 기술 성취 기준을 위한 로봇 체험활동 과제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529-548.

김성일, 임윤진 (2016).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창의 공학 설계'단원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1(1), 128-146.

김소영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일·가정양립' 단원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253-280.

김수민, 유난숙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 개념 '관계' 단원에 구현된 교과역량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2), 1-18.

김윤선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 학년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단

- 원 교육 전후 영양지식, 식행동과 식이자기효능감 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49-71.
- 김은경, 조재순 (2020). 중학교 가정교과의 SDGs 교육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생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2(2), 77-97.
- 김은실, 조현주, 김윤희 (2015). 가정교과의 녹색식생활 교육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3), 63-77.
- 김은정 (2017).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및 내용 체계의 하위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가중치 도출 : ‘가정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6(5), 495-511.
- 김지숙 (2017).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 성격과 핵심역량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0(1), 1-18.
- 노희연, 조재순, 채정현 (2017).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교과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161-193.
- 류상희, 진의남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 (기술·가정) 교과 역량 인식 및 개선 연구. **실과교육연구**, 22(3), 1-17.
- 박은희, 이상주 (2016). 중학생의 자의식이 기술·가정교과 ‘옷차림과 자기표

- 현’ 단원의 중요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2), 51-64.
- 박인영, 이경택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 적정기술 수업과정안 개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2(2), 83-103.
- 박채은, 김유경 (2019).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분석: 제 7 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4), 97-113.
- 백민경, 조재순 (2015).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평가: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4), 19-35.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
- 양정혜 (2019). 2015 실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분야의 중복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2(2), 65-82.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유미란, 구혜경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1 교과서 분석-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4(3), 51-84.

- 육경민 (2020).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 및 탐구 성향 분석- ‘지속 가능한 소비’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143-1165.
- 윤인경, 이수정 (2017).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인구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교육**, 10, 39-60.
- 윤인경 외 15인(2018). **중학교 기술·가정 1 지도서**. (주) 미래엔.
- 이광우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 핵심역량.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1-29.
- 이광우, 진의남 (2018).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과 기술 분야의 타 교과 간 성취기준 연계·융합 내용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1(3), 133-155.
- 이상봉, 곽유림 (2017). 중학교 기술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실과교육연구**, 23(1), 281-300.
- 이성민, 유난숙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반영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31(2), 79-94.
- 이수정 (2015). 2015 개정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 적용 방안-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인구교육**, 8, 49-67.

- 이수정 (2017).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인구교육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31-49.
- 이은상 (2015). 중학생의 기술·가정교과 ‘문제 해결과 발명’ 단원에 대한 인식. **수산해양교육연구**, 27(5), 1424-1435.
- 이은선, 전미경 (2019).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남녀 삽화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2), 137-153.
- 이정윤, 유난숙 (2015).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의 ‘소비생활’ 영역 중복 내용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4), 121-140.
- 이춘식 (2015). 중학교 기술·가정, 과학 교과서의 원자력 관련 교육내용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1), 89-103.
- 이춘식 외 12인(2018). **중학교 기술·가정 1 지도서**. (주) 천재교육.
- 임영대, 김진수 (2020).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단원의 기업가정신 교육 수업자료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231-1251.
- 임윤진, 박미정 (2019). 2015 개정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하위요소와 기능의 구체화.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2(1), 141-162.
- 임정하, 전미경 (2016). 2015 개정 가정과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 :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1), 1-17.

전세경 (2015).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 개발에서의 쟁점 및 방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4), 19-36.

진의남, 류상희 (2016). 실과 (기술·가정) 교과 역량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9(2), 61-75.

진의남, 박수진 (2016). 실과 기술 영역의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9(3), 149-166.

진의남, 임윤진, 박수진, 이광재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준거 성취 기준에 기초한 실과 (기술·가정) 의 기술영역 예시평가 도구의 개발. **실과교육연구**, 23(4), 33-54.

채정현, 박미정, 김성교, 한주 (2017). **가정과 교육론 2판**. 교문사.

최성연, 이영선, 김은정, 김승희, 이지선, 조재순 (2019).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 내용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1), 115-136.

최유리, 김은정, 이소영, 이지선, 임소진, 박미정 (2018).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활동과제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0(4), 37-55.

한국교육신문 (2021).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검색일 2021. 05. 31.)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076>

한주, 이현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활동 과제의 동기유발 전략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639-664.

한주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활동과제의 민주 시민역량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30(1), 79-97.

한주 (2018). 가정교과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593-615.

허영선, 김남은 (2020).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32, 111-133.

허영선, 채정현 (2020). 중학교 가정교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1403-1433.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Publishing.